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"주거+일자리 연계로 청년 희망 만들어내야" 오류동 행복주택·노후청사 복합개발 현장 방문...청년 주거정책 의지 밝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세대 내·외부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자, 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.

* 오류동 행복주택은 아파트 4개동, 행복주택 890호로 이루어져 있고, 이 중 약 700호가 대학생, 사회 초년생,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

○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소감과 입주 후 바람, 정부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공유하였다.

□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.”라고 말했다.

○ 김장관은 특히 “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 약속한 것과 같이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서서 일자리와 커뮤니티로 연결되도록 하겠다.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취직, 결혼, 출산 등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.”라며,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밝혔다.

○ 또한, 김 장관은 “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”라며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.

- 한편,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“주민 간 소통과 활력 제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”과 함께
 - “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연계된 공간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”을 당부했다.

- 아울러, 김 장관은 지난해 선정한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가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.
 -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노후 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고, 낙후된 공공청사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재생의 효과도 있는 일석 이조의 사업이다.”라며,
 - “정부는 이곳 오류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도심 노후청사의 복합 개발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1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2018. 2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**사업개요**

- 기 간 : 2017. 12월 ~ 2020. 3월
- 위 치 : 오류동 31-138 외 1필지(현 오류1동주민센터)
- 규 모 : 대지면적 1,048㎡ / 연면적 10,340㎡(지하4층/지상18층)
- 용 도 : 주민센터, 체육시설, 근린상가, 행복주택 180세대
- 사업방식
 - 토 지 : 구유지를 SH공사에게 무상사용허가(소유권 변동 없음)
 - 건 물 : SH공사가 건립 후 공공시설은 기부채납, 행복주택은 직접 운영
- 총공사비 : 178억원

□ **사업전후 모습**



<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전 · 후 >

참고2

서울 오류역 행복주택 개요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2013. 8월 ~ 2018. 9월
- 위 치 : 구로구 오류동 64-1번지 일원(지하철 1호선 오류역)
- 규 모 : 대지면적 23,806㎡ / 연면적 57,092.96㎡(아파트 4개동 9~18층)
- 용 도 : 행복주택 890세대, 구립 어린이집, 공동육아나눔터 등

< 계층별 입주물량 및 임대료 >

구분 (청약률)	대 학생 (30:1)	사회초년생 (30:1)	신혼부부 (12.6:1)	주거급여 수급자 (8.2:1)	고령자 (2.2:1)
합계	81호	273호	358호	44호	134호
16㎡	43호 2.7천 / 9.6만원	145호 2.8천 / 10.2만원	-	-	-
29㎡	38호 4.7천 / 17만원	128호 5.0천 / 18만원	-	44호 4.2천 / 14.8만원	126호 5.3천 / 18.8만원
36㎡	-	-	224호 6.9천 / 24.5만원	-	8호 6.5천 / 23.3만원
44㎡	-	-	134호 8.3천 / 30만원	-	-

□ 현장 조감도

